

한국 문화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지난 20여 년간의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얻은 문화심리학적 경험

최상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은 지난 20여년간의 필자의 한국인의 심리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심리학의 이론화 가능성을 논하였다. 서구 심리학의 이론과 설명의 틀을 도입해서 한국인들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직시한 필자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기제들을 연구하였는 바, 심정(心情), 정(情, 미운정 고운정), 한(恨), 한국인의 자기개념(self-concept), 우리성(Weness), 체면(體面), 눈치, 평계, 의례성(儀禮性), 팔자(八字), 의리(義理) 등의 개념들을 일상의 삶과 언어속에서 발굴하여 개발하고 이를 심리학적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이들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들을 기저로 하여 심정치료(心情治療) 및 상담, 횃병, 한국적 광고 및 선거, 아줌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와 심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직시하고 한국 문화심리학의 이론 정립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필자가 한국인의 사회심리적 또는 심리적 특성을 연구해 온 기간을 통산해보면 거의 20년이 되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문화심리학이나 토착심리학이라는 말은 구미의 심리학계에서 별반 사용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고작해야 비교문화심리학이라는 개념과 접근이 소수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비

교문화심리학에서의 연구는 다분히 전통심리학의 기본적 패러다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비서구 문화권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거나 반영한다는 명분 하에 구미 심리학이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론이나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 낸다는 것은 반(反)심리학적은 아니더라도 탈

(脫)심리학적 활동으로 치부되기 십상이었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전통심리학에서 정전적(正典的, canonical)인 것으로 사용되어왔던 방법을 이탈한 것은 그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대상의 특성과 관계없이 비과학적 또는 탈과학적인 방법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 반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에서 공인된 정통심리학자로서의 학문활동적 규범 및 묵시적 요구조건을 지키면서 동시에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는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을 창안하거나, 이 과정에서 비정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경험적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서 필자의 선택은 정통심리학자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비정통적 또는 비심리과학적 ‘상식심리학자(common-sense psychologist)’로 전향하는 것이었다(그러나 결코 비심리과학적이지 않다). 필자의 이러한 선택에 대한 자기 내적 명분과 정당화는 매우 간단하고 분명하였다.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심리학자를 볼들고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올 때, 이에 대해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국의’ 심리학자 또는 ‘한국인’ 심리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필자가 비록 정통심리학자로서의 정체감을 버리고 정통심리학의 개념 및 이론체계적 그리고 방법론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야겠다는 생각과 의지를 가졌다하더라도, 지난 20년간의 연구활동을 되돌아보면 필자의 사고범위나 사고형태는 물론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전통심리학의 접근틀을 파격적으로 탈피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예컨대,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에는 전통심리학의 변형된 연장선상에 있는 비교문화심리학적 사고와 방법론에 따른 연구를 한국인을 주대상으로 하여 수행해 왔는가 하면,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Moscovici (1981, 1984)의 사회적 표상이론(최상진, 1989, 1990)에 메타이론적 뿌리를 둔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연구에 관심을 두어왔다. 다시 1990년대 중반부터는 토착심리학적 또는 문화심리학적 접근과 이론의 틀 속에서 한국인의 토착적 심리개념 및 심리현상을 분석하는 연구에 집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의 연구에서 이처럼 서구에서 창안 또는 개발된 이론체계와 접근을 적어도 메타이론적 차원에서 도입하게 된 배경의 일차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일 필자의 연구를 서구의 이론이나 접근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시키지 않을 때, 이러한 연구는 그 이론이나 연구결과가 아무리 탁월해도 공신력을 갖는 연구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서구는 물론 한국학계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어떠한 지식이 학문적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치(精緻)하게 개발된 이론체계의 틀 속에서 당해 학문분야에서 공인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얻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점, 필자의 심리학적 훈련이 서구의 심리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필자의 연구는 항상 한국인의 삶 속에 그리고 일상의 언어적 생활 속에서 보편화된 ‘말 언어(oral or colloquial language or word)’나 ‘말개념’을 심리학적 개념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 심리학의 시작에서 볼 때 혁명적이며 반서구적인 것으로 비추어지거나 해석될 수 있다. 만일 비교문화심리학이 서구 심리학계에서 공식적 학문체계의 하나로 수용되지 않았거나, 더 나아가 토착심리학이나 문화심리학적 접근이 오늘날처럼 심리학계에서 중요한 담론의 대상으로 떠오르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필자의 연구는 분명히 심리학의 범주 밖에 있는 그야말로 ‘상식수준의 조잡한 비학문적 지식’으로 전락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사례와 에피소드를 여기에 소개한다.

사례 1.

한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한국말로 교육받은 제 1호 심리학자는 고(故) 임석재 박사이다. 이분은 경성제대에서 심리학 전공의 학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인의 심리 연구에 관심을 갖고 한국 민속심리학 분야를 평생을 통해 연구해 왔다. 그러나 임박사가 졸업한 당시인 1930년대는 물론 80년대 후반까지도 민속심리학은 심리학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국심리학계에서 인식하여 왔

으며, 따라서 타인은 물론 그분 자신도 자기 자신을 민속학자로 불러왔다. 만일 이분이 오늘날까지 활동 하셨다면 스스로를 토착심리학자 또는 문화심리학자로 자처하셨을 것이다.

에피소드 1.

필자는 1980년대 초반에 한국인의 속담 분석(최상진, 1981)을 통해 한국인의 사유관심(思惟關心)을 추출하여 이를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 참석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재미있는 분석이라는 반응을 해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분석은 정통심리학적 방법론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심리학적 연구가 될 수 없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타났다. 한 질문자 왈(曰), “그것도 심리학적 연구라고 생각하십니까?”(그러나 요즈음에는 더 이상 이러한 질문은 나오지 않는다).

이제는 한국의 대학에서 교양 교재로 사용되는 심리학 개론서와 사회심리학 교과서에 한국인의 심리를 다루는 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제 한국(인)의 토착심리학 또는 문화심리학이 한국심리학계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의 문화나 한국인의 심리와 관련하여 서구의 전통심리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국적 개념이나 이론을 구성하거나 검증하는 형태의 실천적 연구활동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매우 미온적인 형태로 머물러 있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심리학자들이 토착(또는 문화)심리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 수준은 도달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 수용이나 실천적 관여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를 입증하는 간접적 단서는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한국심리학회 산하에 11개의 분과학회가 있으나 그 속에 비교문화심리학회나 토착(또는 문화)심리학회가 별도의 분과학회로 설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토착(또는 문화)심리학과 관련된 연구에만 전념하여 텁구하는 심리학자의 수가 10명 내외에 불

과할 정도로 그 수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공자, 맹자, 순자와 같은 중국의 유학자나 퇴계, 윤곡과 같은 한국의 유학자들의 사상이나 심성관(心性觀)을 토대로 심리학적 시사점을 찾는 형태의 ‘유학의 심리학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점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접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접근’이라고 칭한다. 반면 필자 및 공동 연구원들은 한국인의 일상적 삶과 언어생활 속에서 한국인의 심리구성 및 사회적 행위에 중요하게 그리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심리-사회적 현상과 이를 지칭하는 ‘말개념’을 찾아내어, 이를 한국인 삶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 이를 다시 한국의 역사-문화적 사상 맥락과 연계시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점에서 필자의 접근을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접근’이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필자의 접근에서는 ‘일반인심리학적 접근(folk psychological approach)’을 주된 메타이론적 틀로 하여, 연구의 주제 및 내용에 따른 방법론적 필요에 따라 실험법(문화맥락을 고려한),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 분석법, 말언어 분석법(linguistic analysis), 연술(narrative) 및 담론(discourse) 분석법, 사회적 사건(social affairs) 및 사례 분석법, 역사-문화적 사건 및 문헌분석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최상진, 1997a, 1997b, 1999a, 1999b, 2000; 최상진, 한규석, 2000; Choi, 1998, 2000).

지난 20년간 필자가 분석하고 개념화한 또는 더 나아가 이론화한 한국인 삶 속의 심리학적 개념은 11종에 이른다. 이들 개념을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정(情)
- 우리성
- 한(恨)
- 화(火)
- 심정(心情)
- 체면(體面)
- 눈치
- 의례성(儀禮性)
- 평계
- 의리(義理)
- 팔자(八字)

이들 개념들은 모두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용해 오고 있는 일상언어(vernacular)로서, 그 말속에는 한국인의 역사·문화적 삶 속에서 축적·농축된 경험 그 자체와 경험관련 사건이 실물체의 형태로 내장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그 말이 무엇(어떤 현상)을 지칭하며, 어떤 사건이나 경험 맥락에서 그 말을 사용하고, 그러한 경험이나 사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말과 관련된 현상이 어떤 의미, 감정 및 사회·도덕적 가치평가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 비교적 정형화되고 구획화된 현상지칭적 표상(reference-bound representation)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그 말이 함축하거나 지칭하는 경험과 사건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과 사건이 생성되는 이유 또는 인과적 과정에 대한 소이연적(所以然的) 및 소당연적(所當然的) 성격의 설명체계가 마치 물상계(物象界)에 대한 설명처럼 자명한 형태로 체계화되어 있다(최상진, 1999a; Choi, 2000).

바로 앞에서 언급된 것들은 문화심리학에서 어떤 개념이나 어떤 현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특정 개념이나 현상의 ‘문화심리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준거와 관련된 요구 조건적 명제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들 11개의 개념 각각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먼저 이들 개념들이 이러한 요구 조건적 명제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일을 필수적 선행과제로 하였다. 일단 이러한 확인이 이루어진 후에 다음 과정의 심층적 분석이나 이론적 검증을 실시하는 절차를 따랐다. 연구결과는 이들 11개의 개념이 모두 문화심리적 개념으로 적합함을 입증해 주었으며, 이러한 확인 위에서 보다 정치(精緻)한 형태로의 심리학적 개념화와 이론 구성 및 이론 검증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결과들은 한국말로 된 심리학 학술지 및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지 등에 주로 발표되었으며(부록 참고),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아시아 사회심리학회(Asia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세계비교문화심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를 비롯한 문화관련 국제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oretical

Psychology)등에서 발표된 바 있다.

앞에서 소개된 연구들은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문화-사회심리적 마음-경험에서 빈번하고도 중요한 현상과 관련된 한국의 토착심리적 개념을 찾아내어 분석하는데 주 관심을 둔 연구이다. 다른 한편 필자는 이러한 문화-사회심리적 마음-경험이 중요하게 관여되는 사회적 관계 및 행위·활동 상황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컨대, 한국의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일심동체(一心同體)적 관계에서 어느 한쪽의 고통이나 즐거움에 대해 다른 한쪽이 그대로 자화(磁化)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검증한 부자유친성정 연구(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한국의 고부관계 갈등의 원인을 시가 쪽 가족중심의 우리편 편가르기에서 발생되는 며느리의 피배제의식(被排除意識)과 이와 연계된 소외의식(疎外意識)과 반발의식(反撥意識)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최상진, 유승엽, 1991),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광고에서 소구(訴求)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문화심리적 개념(우리성, 정, 가족성, 시골성 마음) 추출연구(최상진, 유승엽, 1996; 최상진, 탁동일, 유승엽, 1997), 한국인의 투표에서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심리적 변인(베타적 우리편 의식, 정적 애착, 자기동일시 지역의식)과 관련된 심리과정 분석 연구(최상진 등, 1997b, 2000)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DSM-IV에 한국의 문화적 신드롬으로 등재된 횃병(Hwa-Byung)의 문화심리적 기제를 밝히는 연구를 통해 횃병의 원인이 되는 한국인의 화와 서구의 anger가 관여된 심리기제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고 있다(최상진, 이요행, 1995). 여기서 화의 발생과 관련된 일차적 기제는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부당하게 남으로부터 피해를 받아 생겨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억울한 감정’에 대한 자의식인 반면, 서구의 anger는 ‘자신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한 가해자의 부당성에 대한 원망, 증오의 대상지향적 감정’으로 규정되었다.

- 한국인의 부자유친성정
- 한국인의 고부갈등
- 한국적 광고

- 한국인의 투표행동
- 획병

앞에서 소개된 연구들과 관련해서 관여된 필자의 주요 관심은 한국인에게 중요하고 현저한 형태로 편재(遍在)되어 있는 토착심리적 현상과 이와 관련된 개념들이 한국의 가족관계적 행동과 기업 광고활동 및 정치적 투표행동에서 어떤 형태로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데 관심을 둔 연구였다.

필자의 관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통적 서구심리학의 주요 핵심 개념, 예컨대 자기(self) 또는 이차적 통제(secondary control), 등과 관련해서 한국의 토착심리적 현상과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에게 적합한 한국적인 심리이론을 탐색해 보는데 관심을 두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인의 자기(self)가 서구인의 self와 비교해서 어떤 문화적 특색을 갖는 구성을 가지며(최상진, 김기범, 1999c; Choi & Kim, 2000), 한국인의 문화적 self의 심리적 구조는 어떠하며(최상진, 1992a, 1992b),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차적 통제의 하위 유형은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최상진, 1992c), 이러한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들이 갖는 공통적 하부구조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타이론적 틀을 탐색하는 연구(최상진, 1997a, 2000; Choi, 1998)를 수행하였다. 필자는 여기서 서구의 심리학을 제 3 자 심리학으로 규정하고, 한국인의 일반인 심리현상에 부합하는 한국인심리학의 한 접근모델로 당사자 심리학을 제안하였다.

- 한국인의 자기(自己)
- 한국인의 문화적 자기
- 한국인의 당사자 심리학
- 한국인의 통제유형

지금까지 앞에서는 필자가 지난 20년 간 수행해온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심리학적 연구들을 그 연구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여 소개

하였다. 이 범주들은 먼저 토착심리학적 개념구성 연구, 다음으로 이러한 토착심리학적 개념을 실제의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행위·활동 맥락에서 찾아내고 분석하는 연구,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서구의 전통적 심리학 개념이나 이론적 틀 속에 반영해 보는 연구 등이다. 위에서 기술된 형태에서 보면, 미리 기획해서 한 것처럼 보인다. 각 범주에 포함된 연구주제들이 각기 독립적 중요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서로 연관성을 갖거나 또는 어느 한 연구가 그 앞에 수행된 다른 연구의 결과와 관련지어 도출된 관련 연구처럼 독자에게 비추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연구과정에서는 연구의 성격에 따른 분류체계가 미리 연구자의 머리 속이나 계획 속에 짜여진 상태에서 연구가 구성된 것도 아니며, 또한 각 범주 속의 연구들이 어떤 논리적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연구주제를 선택하고 순서 지워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연구자인 필자의 머리 속에는 문화심리학이 '어떠해야 한다'는 틀도 없었으며, 어떠한 논리적인 체계 속에서 연구주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저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지나 가다가 어떤 현상을 보고 문득 '아! 이것이 한국인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나 현상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면 이를 주제로 삼아 연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들이 앞에서 소개된 연구들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를 통해 추출된 지식들은 다분히 현장 중심적이며 자료중심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현장중심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 및 자료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이 글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 동안 토착(또는 문화)심리학이나 비교문화심리학과 관련하여 그 학문이 어떤 학문이며 그 접근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인식론적 측면의 글들은 이 분야를 주도하는 학자들에 의해 많이 발표되어 왔으며, 다양한 인식론적 형태의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글이나 논의를 접할 때마다 필자가 가져왔던 느낌은 '화려하되 공허한 지적 유희'라는 생각이었다. 당위는 당위이고, 논리는 논리이며, 현실은 현실이다. 그 동안 우리는 당위와 논리

에 가리워져 현실을 보는 일을 등한시해 왔다는 느낌을 필자는 갖는다. 이 시점에서는 현실을 통해 논리를 구축하고 당위를 구성하는 문자 그대로의 ‘일반인의 삶 중심적, 일반인의 심리학’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필자의 경험에 바탕한 사유를 통해 얻어진 생각과 지식을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해 보기로 한다. 즉 하나의 범주는 한국인의 토착심리적 개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귀납적으로 추출된 문화심리학적 접근의 메타이론적 방법론이며, 다른 하나는 11개에 이르는 한국인의 토착심리적 개념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메타이론적 심리학적 틀이다.

문화심리학의 성격과 접근방식에 대한 필자의 메타이론적 틀

지금까지 토착심리학적 개념의 발굴 및 구성에 관심을 두고 이루어진 토착(또는 문화)심리학적 연구들을 문화권 또는 민족·국가별로 일별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한 문화권 또는 한 민족 국가 단위에서 발굴하거나 구성된 개념의 수가 1~3 가지 정도, 아니면 많아야 5 가지 미만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필자의 연구에서는 발굴·구성한 개념의 수가 11 가지에 이르며, 여기에다 한국인의 문화심리와 관련하여 구성된 토착적 이론까지를 합하면 20여 가지에 다다른다. 여기서 두 가지 형태의 문화심리학적 접근방식을 투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자의 경우에서처럼 적은 수의 토착적 개념을 중심으로 고밀도의 심층적 접근을 통해 이들 개념을 공식화된 개념화 수준에 도달한 연후에 다른 새로운 개념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하는 접근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필자의 경우에서처럼 많은 수의 토착적 개념에 대한 일반인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이들 개념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표상과 이들 개념이 지칭하는 현상에 대한 일반인의 설명양식을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개념 및 현상간의 관계성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얻어진 메타적 관찰을 다시 일차적 개별 개념 분석 결과의 수정·보완에 반영하는 접근방식이다.

이 두 가지 접근방식 중 어떤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인가의 문제는 문화권에 따라, 연구자의 접근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다만 필자의 경우에서처럼, 한국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개념을 일차적으로 개념화하고 다시 이들 개념들 간의 비교를 통해 상호관계성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다시 개념화에 반영하는 접근방식에서 발견된 이점과 더불어, 이러한 다수의 문화심리학적 개념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들을 문화심리학의 성격 및 접근과 관련된 시사점의 형태로 제시해보기로 한다.

1. 토착심리학적 낱말(word) 속에 내재된 개념구조는 그 낱말과 동족관계에 있는 다른 낱말과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가에 대한 비교속에서 그 형체를 드러낸다. 그들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일반인이 실천적 삶의 맥락에서 이들 동족관계에 있는 낱말들을 어떻게 변별적으로 사용하는가를 통해 일반인의 마음속에 현실화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낱말에 대한 개념화가 일반인의 마음속에 명시적(혹은 외현적) 또는 묵시적인(혹은 암묵적)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토착심리학적 개념에 대한 연구에서는 하나의 개념 또는 낱말을 그 종국적 밑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천착하는 방식보다는, 하나의 개념에 대한 어느 정도 깊이의 분석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동족개념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이들 개념에 대한 메타적 차원에서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들 개념간의 차이점과 관계성을 밝히고 그 결과를 다시 이들 개념에 대한 개념화에 반영하여 단일개념분석에서 이루어진 개념화를 수정·보완하는 접근이 효과적이다.

2. 앞의 1과 관련된 것으로, 토착심리학적 개념분석 연구에서는 전통심리학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거나, 조작적 정의에서와 같은 완벽한 형태의 폐쇄적 개념규정 방식과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토착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일차적으로 일반인들

이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사용하는 낱말을 그대로 개념으로 전용하고, 이 낱말의 심리학적 개념화를 통해 이 낱말을 심리학적 개념으로 정교화시키는 방식이 하나의 보편적 접근방식이 된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토착심리학적 낱말을 사용할 때, 이들의 머릿속에 그 낱말이 어떤 심리적 요소나 조건을 내장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개념화나 표상구조가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형태로 존재하거나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토착심리학적 낱말을 어떤 경우에 또는 어떤 현상을 지칭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을 알고 또 실제로 비교적 적합하게 사용해오고 있으며, 그러한 낱말에 내장된 요소나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이 그 낱말이 갖는 개념구조인가를 판단하도록 할 때 어느 정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일반인들의 이를 낱말에 대한 개념구성은 묵시적이거나 느슨한 요소의 집합(loose constellation)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토착심리학적 낱말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문화심리학적 연구에서는 그 낱말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개념구성 작업 자체가 제 1차적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여기서 연구자가 할 일은 그 낱말이 ‘어떤 경우에 그리고/또는 어떤 현상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상황·대상 포괄적으로 동시에 심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머릿속에 전체가 아닌 과편적 부분의 형태로 분산해 있는 표상과 의미의 요소들을 발굴하여 이를 통합적이며 응집된 구조의 형태로 구성 및 재구성하는 일이다. 이 작업 과정에는 불가피하게 연구자의 주관과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일반인의 낱말사용 방식이 과학자가 개념을 사용하는 방식처럼 법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완벽한 형태의 개념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화심리학에 있어서의 개념화는 미래의 보다 나은 정교화를 지향한 개방적 개념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

3. 문화심리학적 낱말의 개념화속에는 사람의 마음이 질적, 요소적, 그리고/또는 마음의 인과적 또는 마

음-전개적 과정의 형태로 함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심리적 낱말이 지칭하는 현상이나 사건은 자연의 물상적 현상이나 사건에서와는 달리 작위하거나 피작위되는 사람과 마음이 중요한 구성요소로 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이나 개념화는 이에 개입된 사람(들)의 행위맥락에 관여된 마음 즉, 의도성, 생각, 감정, 도덕성, 가치관 등에 대한 전제적 규정이나 기능적 마음-행위 인과에 대한 가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확대시켜보면, 문화심리학적 개념은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에 대해 구성한 인간관 및 마음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의 문화심리적 경험과정에서는, 특히 문화심리적 사건에 당사자적으로 관여된 사람의 경험과정에서는, 사람의 또는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이 문화심리적 현상의 경험에 깊이 관여된다는 자의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물리적 현상을 체험하고 기술하는 것처럼 준실물성 경험을 하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러한 경험에 관여되는 자신 또는 사람의 전제(presupposition)나 가정 또는 추론 등은 현상 및 사건에 대한 경험의 과정은 물론 이에 대한 해석의 과정에서까지도 빠지게 된다. 이처럼 전제, 가정, 또는 추론이 빠지게 되는 배경에는 문화심리적 낱말이나 개념이 직접적으로 연계된 구체적 현상이나 사건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러한 낱말이나 개념이 지칭하거나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자명하다’는 전제 위에서 그러한 낱말이나 개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문화심리적 현상에 대한 성격 및 의미규정은 정보처리에 있어서의 자동처리 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토착(또는 문화)심리학적 낱말이나 개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자동처리 과정에서 빠진 심리적 과정을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그 성격을 규정하고, 이러한 심리적 과정이 외현적인 문화심리적 현상이나 사건의 성격 및 의미규정과 해석의 과정에 어떻게 관여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그 낱말의 문화심리적 개념화 작업에서 핵심적 과제가 된다. 이는 곧 토착심리학적 개념화 연구에서

핵심적 연구 대상과 과제는 문화심리적 현상과 사건에 대한 경험과 해석에 관여되는 문화심리적 마음과 생각의 내용과 과정임을 뜻한다.

일본인 작가 아사다 지로(2000)의 ‘낯선 아내에게’라는 소설에서 나타난 한 글귀를 소개한다.

꽃은, 만개한 봄꽃은, 마음이 없어서, 단지 마음이 없어서 지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없어서 꽃이 스스로 진다’는 표현이 문학적 표현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은 마음이 없는 꽃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의인화하여 꽃이 지는 현상을 형상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현상에는 마음이 관여되지 않지만 인간현상 즉 인간사(人間事)에는 마음을 부여한다는 것이 자연사(自然事)와 인간사(人間事)를 구분 짓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심리학은 문화 속의 인간사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때 문화심리학에서 마음을 핵심 개념으로 연구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4. 토착(또는 문화)심리학적 현상이나 사건을 마음과 생각의 차원에서 개념화하는 것은 외현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심리적 현상과 사건을 마음과 생각이라는 공분모 상에서 현상이나 사건을 정의하고 기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심리적 현상이나 사건의 성격과 관련하여 상호비교를 통한 개념간의 변별과 속성 비교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보다 상위차원의 개념구성을 가능하다. 이러한 상위차원의 개념은 Greenfield(1999)가 말하는 문화심리적 심층구조(deep structure)에 근사한 개념으로, 한 문화권 내에서 동족관계에 있는 문화심리적 개념들 간에 공통적인 요인으로 추출·구성된 상위차원의 또는 심층구조적인 개념은 한 문화권의 문화심리적 구조를 통합적인 이론적인 틀로 구성하는데 초석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민족이나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문화심리적 현상을 비교 분석할 때, 이러한 현상적 차이가 문화심리의 본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문화심리의 외현화 과정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석하는데 심층구조적인 개념은 상이한 민족이나 집단의 비교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한국인의 토착심리학적 개념분석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토착심리학적 현상에 대한 분석을 일차적 자료로 하여 도출된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심층구조를 몇 개의 제한적인 예시의 형태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통찰의 하나는 서로 다른 동족개념들이 외현적으로는 서로 다르며 동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현상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개념들의 하부구조에 깔려있는 마음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할 때 이들 개념들은 동일한 뿌리의 심리적 하부구조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정’과 ‘우리’는 모두 ‘너’와 ‘나’가 하나로 묶여지는 정서적 속성(정)과 인지적 구성체(우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 두 개념간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느 한쪽이 없을 때 다른 한쪽은 의미가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정’과 ‘우리’는 불가피하게 서로 붙어 다니는 동일 현상의 서로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체면’과 ‘눈치’의 관계를 보면, 체면이 민감하게 관여되는 상황에서 눈치가 활성화되며, 동시에 눈치의 궁극적 기능이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거나 세워주는데 있다. 즉 눈치는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거나 세워주기 위한 도구적 수단이 되며, 따라서 체면과 눈치는 모두 상대의 지위·신분 욕구를 심층구조로 한 목적과 도구적 관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자의 메타분석적 경험을 통해 얻어진 인상의 하나는 한국인 문화심리의 심층구조는 초기의 개념분석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복잡하지 않고, 의외로 간단하다는 것이다. 만약 일반인의 마음속에 있는 문화심리적 심층구조가 복잡하다면 일반인들이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데 큰 불편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심층구조는 일반인의 실천적 삶의 현장에서의 순응적 적응에 역기능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문화가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문화심리적 심층구조는 비록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심층구조

여기서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심층구조에 대한 설명은 이론중심적 논의전개 방식은 피하고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한국인에게 있어서의 '우리'와 '남'

상대를 초면했을 때, '우리'라는 동류의식을 유발할 수 있거나, '우리'라는 말로 상대를 칭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성 사회적 단서'나 '우리성 상징'을 찾아 서로 공 확인하는 것은 상대와 나와의 '우리성 관계'를 접촉의 초기단계에서부터 규범적으로 선조건화(preframing)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상대와 내가 만나는 맥락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 '협력', '단결'을 함축할 때, '우리성 관계'의 사회심리적 맥락을 조성하게 된다.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성'은 일반적으로 상대에 대해 배타성을 띠는 '우리편'을 함축하며, 우리편밖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은 나와 다른 사람을 함축하는 말인 '남'으로 간주되어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나와 다른 사람으로서의 남은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는 차원을 넘어 인간관계적 맥락에서의 동기와 뜻이 다르다는 것까지를 함축한다. 따라서 한국인에게 있어 남이 된다는 것은 상대로부터 '찬밥'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우리가 된다는 것은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똑같은 뜻과 생각을 갖고 똑같이 그리고 함께 같이 행동하는 것을 이상적인 모형으로 삼는다.

2. 한국인의 '정(情)'

상대방을 '우리'나 '우리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거나 회생한다는 자세로 상대를 위한 행동을 해야한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나에게 마음을 주는 행동', '나에게 마음을 써주는 행동' 또는 '나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해석한다. 이처럼 '이해관계 없이 마음을 주거나, 마음을 써주거나, 생각해주는(아껴주는)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때 그러한 행동을 '정을 주는 행동', 그러한 정을 주는 행동이 누적될 때 '정이 깊어진다'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정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정든 관계'라고 말한다. 정의 순수 원형은 한국인의 가족에서 출발하며, 한국의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일심동체'로서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을 규범적 이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정의 가장 이상적 상태는 가족관계에서처럼 서로 상대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 사회관계에서의 정은 이보다는 크게 약화된 또는 회색된 상태의 정을 의미한다. 한국인들은 서로 상대의 나에 대한 정을 간주관적으로 공 확인할 때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가 되었을 때 한국인들은 서로 상대를 집안식구처럼 편안하고 든든하게 느끼며, 따라서 깊은 '우리성 관계'에서는 사회적 격식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 '우리-정' 관계에 있어서의 심정논리와 심정담론

한국인에게 있어 정든 관계 또는 우리성 관계가 형성되면, 이러한 관계에 걸맞는 언행의 논리가 있다. 그 논리는 '우리편 논리'와 '심정 논리'로 집약해 볼 수 있다. 우리편 논리는 가상적이건 또는 현실적인 상대편이 있다는 것이 전제된 논리로서,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이해관계보다는 '우리 집단'의 목표나 규범을 더욱 우선시하는 논리이다. 또한 우리편 논리에서는 옳고 그름이나 사회적 정의는 중요한 고려 또는 판단 차원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반대로 우리 집단의 응집력과 우리 집단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중요한 판단의 준거가 된다. 다른 한편 심정논리는 우리성 관계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대방이나 자신의 속 마음(unmanifested inner mind)과 속감정(inner feeling)의 욕구와 논리에 따른 사고형식을 말한다. 이러한 심정논

리의 사고형식은 사리논리나 사회적 이성논리의 사고형식과 대비되는 것이다. 심정논리에서는 상대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밖으로 드러난 사건적 사실에 대한 이성적 판단보다는 마음속에서 전개되는 ‘욕구-감정관여적’ 사건해석이나 논리적 귀결이 사고나 주장전개의 기조가 된다. 이러한 심정논리적 대화나 담론은 가까운 우리성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정논리적 대화나 담론은 우리성 관계를 확인하는 단서로도 작용한다.

4. ‘속마음’으로서의 상대 심정 읽기와 부정적 상대 심정에 대한 대처

가까운 대인관계에서는 상대가 나에게 말로 표현하기 곤란하거나 어려운 속마음 즉 심정을 읽는데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민감하여야 하며, 동시에 상대의 속마음에 대해 적절하고 민첩한 반응과 대처행동을 해야한다. 한국인들은 상대에게 말하고 싶은 심정적 불만족이 있어도 상대와의 관계맥락적 성격에 따라 말해서는 안될 또는 말하기 곤란한 성격의 불만족이나 인간관계적 맥락이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적 맥락에는 상하관계, 친소관계, 공식-비공식적 관계 및 상황에 따라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복잡하게 미분화(微分化)되어 있다. 이러한 미분화는 규범-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상황-맥락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민감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적 상대 심정에 대한 대처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어떤 경우에 또는 누구에게 노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인간관계적 맥락과 상황맥락에 따라서 적합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부적합한 노출이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심정 특히 부정적 심정을 언어로 표현할 경우 그 표현의 방식에 따라 상대에 의해 부정적인 형태로 수용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형태로 수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으면, 한국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지금까지 앞에서 제시된 네 가지의 항목들은 모두 ‘우리성-정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중요하게 관여되는 개념 및 현상에 대한 기술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친밀-인간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지인(知人)과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어떠한 대인관계적 접근이 적합하거나 효과적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게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서도 친밀-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상황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접근방법을 대상과 상황에 맞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서는 상대가 자신의 가치, 힘(권력), 신분적 지위, 능력 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 가늠하기 어렵거나 상대평가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 강하게 서지 않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위와 신분 또는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인정을 확인 시켜주는 언행을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이다. 한국인들은 남이 자신을 알아줄 때 최고의 만족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는 것이 곧 자신의 자존심으로 이식(移植)된다. 즉 한국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곧 자신의 자기개념(self concept)이 된다.

한국 문화심리학의 과제와 전망

‘한국(인) 문화심리학’ 또는 ‘한국인 심리학’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대하지 못했던) 질문이 흔히 제기된다. 하나는 ‘한국인의 심리가 모두 문화적으로만 구성되는가?’라는 질문이요, 다른 하나는 ‘한국인의 심리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한국인에게만 고유한 심리인가?’라는 질문이다. 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인의 심리가 전적으로 문화적으로만 구성된다는 전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Wundt가 실험심리학과 민족심리학(Völkerpsychologie)라는 두 개의 심리학을 설정한 것은 심리가 구성되는 과정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심리현상을 전제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실험심리학은 다분히 인간의 생리-심리적 과정에 초점을 둔 심리학

으로 주로 감각과 지각 영역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감각 및 지각과 같은 생리-심리적 영역은 실험적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전제위에서 이 영역을 연구하는 심리학을 실험심리학으로 명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 편 보다 복잡한 고등정신 영역에 속하는 인지와 사고의 분야는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심리영역으로 간주하였으며 동시에 이 영역은 집단적 사고 및 문화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전제 아래 이 영역을 민족심리학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 영역의 연구에는 전자에서와 같은 실험심리학적 연구법이 적합하지 못하며, 그대신 언어분석, 풍습, 전통적 제도 및 역사적 유물들과 같은 문화적 산물의 심리적 분석을 통해 민족심리를 연구할 수 있다고 Wundt는 파악하였다. 여기서 민족심리학은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문화심리학의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심리학이란 말은 인간의 생리-심리적 과정과 밀접히 연계된 심리적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말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서구의 전통 심리학에서 발전시켜 온 실험심리학적 이론과 연구결과들은 한국인의 문화심리학과 더불어 상보적 관계에서 공존할 수 있으며 또 그리해야만 할 학문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해 한국인의 문화심리학은 한국의 역사-사회-문화적 과정에서 구성되어진 심리영역과 그 내용을 심리학적으로 구명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질문, 즉 ‘한국의 문화심리학은 한국인에게만 해당되는 문화심리학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의 문화심리가 일본인, 중국인 또는 미국인의 문화심리와 다른가의 문제는 비교-문화심리적 (comparative cultural psychology) 연구를 통한 경험적 자료에 의해 해답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의 학문적 속성 중 하나인 경험적 비교연구없이 이 문제에 대한 관념적 논의나 논쟁은 비생산적이다. 비교-문화심리적 연구를 위해서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집단 즉 ‘비교문화권의 사람들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심리학’들이 먼저 구성 또는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비교문화심리적(cross-cultural psychology) 연구에서와 같이 서구의 심리학적 이론을 일방적으로 타문화권에 도입하여 적용하는 연구 패러다임이나, 이와 관련해서 비서구의 타문화권 사람들의 문화심리학이 정체화(正體化)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 사람들의 심리를 (그것도 서구의 심리이론을 적용하여) 타문화권 사람들의 심리와 비교하는 것은 문제점을 지닌다. 서구의 이론은 물론 개념이 비서구권의 사람들(예컨대, 한국이나 일본 등)에게 적설성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서구에서 정밀한 수준에까지 발달된 서구의 심리이론을 기본적 틀마저도 갖추지 못한 연구수준에 있는 동양인 심리의 이해에 적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효용가치나 의미성이 매우 적다. 동일한 맥락에서 비교문화심리적 연구의 결과가 동서양, 예컨대 미국과 한국의 결과 다를 때 그 이유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의 문화심리적 이론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차이에 대한 해석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들에서 나타난 문화차에 대한 해석에서 이러한 오류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 의미에서의 문화심리학적 연구의 타당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각 문화권에 따른 문화심리학적 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문화심리학에 대한 또하나의 오해 즉 ‘문화심리학은 문화간 공통되는 심리현상보다 문화간 차이를 연구하는데 주관심을 둔다. 따라서 문화심리학은 과학의 보편성 추구 정신이나 설명에서의 경제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오해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화심리학은 문화적 독특성이나 또는 이와는 반대로 문화적 보편성(universality) 중 어느 것도 중심적으로 지향하지 않는 입장을 택한다. 다만 문화심리학은 특정문화권에서 중요하고 빈번하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심리현상들을 현장위주로 발췌해 연구하는데 일차적 관심을 둔다. 예컨대, 한국의 문화심리학적 연구주제들은 앞에서 제기한 주제선정의 기준에 입각하여 선택된 연구대상 현상이며 개념들이다. 특정한 한국인의 심리현상이 일단 체계화, 개념

화, 이론화되면 다음 단계는 한국과 유사한 문화권에서 그러한 개념이 동시에 존재하는 다른 문화권의 개념과 비교해보는 것이 제 2차적 관심이 된다.

실례로, 한국인의 정을 일본의 아마에, 중국의 칭과 비교해 본바 있으며, 현재 한국인의 체면과 이것의 유사개념인 중국의 *lian*, 일본의 *mentz*를 비교하는 연구가 계획 중에 있다. 이러한 비교-문화심리적 연구의 주관심은 독특성을 찾는 일과 더불어 보편성을 찾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 중일의 ‘정’ 또는 ‘체면’ 개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차상위의 추상화된 개념(abstracted 또는 higher-level concept)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이러한 삼국의 공통개념을 찾아내면 다음 단계는 이들 삼국과 문화권이 다른 서구의 (social) face 개념과 비교하는 차차상위의 비교-문화심리적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추상화와 단계적 비교-문화심리적 연구를 통해 정이나 체면이라는 개념이 보편성을 갖는 개념인가 아니면 특수성을 갖는 개념인가가 궁극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문화심리학은 그 분석된 개념의 수나 개념에 대한 정리 및 이론화 단계에서 타 동양문화권의 문화심리학은 물론 서구의 문화심리학(예컨대 독일의 문화심리학 또는 프랑스의 문화심리학 등)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문화심리학 발전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과제는 새로운 한국적 문화심리 개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념화 및 이론화를 기하며, 이들 개념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보다 심층 심리적 심리학적 개념을 추출 또는 창출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우리와 문화권이 유사한 이웃나라와의 비교-문화심리적 연구를 활성화시켜 나가며 이를 확대 시켜 서구 문화권과의 비교-문화심리적 연구를 통해서 서구 심리학과의 연계성과 차별성을 이론 차원은 물론 경험적 차원에서 확인해 나가는 일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아사다 지로 (2000). 낯선 아내에게. 서울: 문학동네.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1999a). 문화와 심리: 그 이론적 배경, 과제 그리고 전망. *한국심리학회 히계심포지엄*, 1-20.
- 최상진 (1999b). *한국인의 마음*. 최상진, 한덕웅, 윤호균, 조긍호, 이수원 (공저), *동양심리학: 서구 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pp. 377-479). 서울: 지식산업사.
- 최상진 (1997). 당사자 심리학과 제3자 심리학: 인간 관계 조망의 두 가지 틀. *한국심리학회 추계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131-143.
- 최상진 (1997b).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pp. 695-766). 서울: 학문사.
- 최상진 (1992a). *한국인의 문화-심리적 自己*. 인문과학 논문집 제35집,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3-224.
- 최상진 (1992b). *한국인의 ‘문화적 自己’*: 하나의 자기발견적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 논문집*, 263-274.
- 최상진 (1992c). *한국인의 통제유형*. *사회과학연구 제5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05-120.
- 최상진 (1990). 사회적 표상이론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9(1), 74-98.
- 최상진 (1989). 사회적 표상이론의 체계. *사회과학연구 제3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83-100.
- 최상진 (1981). 속담을 통해서 본 한국인의 전통의식. *내혜흘 창간호*.
- 최상진, 김기범 (1999a). 범죄의 사회-문화적 구성성: 여론과 언론보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136-151.
- 최상진, 김기범 (1999b).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부자유친 성정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 논문집*, 65-82.
- 최상진, 박희랑, 박무익 (1997). 한국대학생의 대통령 후보선택에 관여되는 한국적 Parameter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611-626.

- 최상진, 유승엽 (1991). 고부관계를 조망하는 이론적 시각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여성논문집 제 2권*, 51-80.
- 최상진, 유승엽 (1996). 문화심리적 측면에서 본 한국적 광고: 그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적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201-214.
- 최상진, 탁동일, 유승엽 (1997). 한국적 광고의 심리적 속성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157-168.
- 최상진, 한규석 (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학계학술발표대회*.
- Choi, S. C. (1993). The nature of Korean selfhood: A cultural psychological per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2), 24-33.
- Choi, S. C. (1998). The third-person-psychology and the first-person psychology: Two perspectives on human relations.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5, 239-264.
- Choi, S. C. (2000). Cultural psychology: New paradigm for Korean psychology. *Paper presented at the XVth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July 16-21, Pultusk, Poland*.
- Choi, S. C., & Kim, C-W. (1998). Does the multiple self need an identity?: Concerning alternative constructions of the "self". *Paper presented at the 4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Cultural Research and Activity Theory, June 7-11, Aarhus, Denmark*.
- Choi, S. C., & Kim, K. (2000). A conceptual exploration of the Korean self. *Paper presented at the XVth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July 16-21, Pultusk, Poland*.
- Greenfield, P. (1999). Three approaches to the psychology of culture: Where do they come from? Where can they go?.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 Moscovici, S. (1981). On social representations, In J. P. Forgas (Ed.), *Social cognition: perspectives on everyday understanding*. London: Academic Press.
- Moscovici, S. (1984).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R. Farr & S. Moscovici (Eds.), *Social representations*. 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별첨>

연구주제별 참고문헌

정(情):

- 최상진, 최수향 (1990). 정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1-9.
- 최상진, 유승엽 (1994). 한국인과 일본인의 '정'에 관한 심리학적 비교분석. *인문학연구*, 제21집, 중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39-170.
- 최상진, 유승엽 (1995). 정의 심리적 구조에 대한 경험적 분석.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제5권 1호, 중앙대학교. 107-132.
- 최상진, 김의철, 유승엽, 이장주 (1997). 한국인의 정 표상.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553-573.
- 최상진, 이장주 (1999). 정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219-233.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a). 정(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03-222.
- Choi, S. C. (1991). Cheong: The socio-emotional grammar of Koreans. *Paper Presented at the Colloquium Series, Dep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Hawaii, January*.
- Choi, S. C., & Kim, U. (1998).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of the Korean concept of Cheong (Affection): An indigenous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USA*.
- Choi, S. C., & Kim, J-Y, & Kim, K. (1999). Sweet Cheong and hateful Cheong.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8, Taipei, Taiwan*.

Choi, S. C., & Kim, J-Y. (2000). Cultural emotion of Korea: Cheong. *Paper presented at the XVth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July 16-21, Pultusk, Poland.*

화(火) 및 화병:

최상진, 이요행 (1995). 한국인 화병의 심리학적 개념
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327-338.

우리성(Weness):

박수현, 최상진 (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69-78.

최상진 (1993b).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의식 비교.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229-244.

Choi, S. C. (1990). We-ness: A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organized by Chung-Ang University Social Science Research Centre and Korean Future Studies Centre.*

Choi, S. C., & Choi, S-H. (1990). "We-ness:" The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Paper Presented at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Choi, S. C., & Choi, S-H. (1994). We-ness: A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In G. Yoon, & S. C. Choi (Eds.), *Psychology of the Korean people-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pp. 57-84). Seoul: Dong-A Publishing & Printing Co., Ltd.

한(恨):

최상진 (1991).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339-350.

최상진 (1991). 한의 심리학적 분석. *중대논문집(인문
과학편)*, 제 34집, 257-277.

최상진, 유승엽 (1993). 서편제 속의 '한' 심리학. '93
사회과학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84-93.

Choi, S. C., & Kim, U. (1993). Indigenous form of lamentation in Korea, Han: Conceptual, philosophical, and empirical analyse. *사회과학연구* 6집, 중앙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85-205.

심정(心情):

최상진 (1993a).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심
포자움 발표논문집*, 5-21.

최상진 (1994).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사회과학연구
제7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13-237.

최상진, 김기범 (1999c).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
학회지: 일반*, 18(1), 1-16.

최상진, 김기범 (1999d). 한국문화적 심리치료접근으
로서의 심정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11(2), 1-18.

최상진, 김정운 (1998). "Shim-cheong" psychology as a
cultural psychological approach to collective meaning
construction.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79-96.

최상진, 유승엽 (1996). 심정심리학의 개념적 틀 탐색.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377-388.

Choi, S. C. (1994). Shim-cheong psychology: The indigenous
Korean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Asian
Workshop: Asian Psychologies: Indigenous,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Seoul, Korea.

Choi, S. C. (1997). Integrated framework of the Korean
psychology: Shimcheong psychology. *Paper presented
at the Osaka Korean Studies*, 190-200.

Choi, S. C., & Kim, C-W. (1997). "Shim-cheong"
psychology as a cultural psychological approach to
collective meaning construction. *Paper presented at
the Berlin Conference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oretical Psychology*, 27 April - 2 May.

Choi, S. C., & Kim, K. (1999a). The Shimcheong therapy
for Koreans: A formulation of an indigenous cultural
approach. *Paper presented at the 2nd World Congress*

- of the World Council for Psychotherapy, July 4-8, Vienna, Austria.
- Choi, S. C., & Kim, K. (1999b). Shimcheong: The key concept for understanding Koreans' mind.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체면(體面):

- 최상진, 김기범 (1998).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559-577.
-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최상진,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137-157.
- Choi, S-H. & Choi, S. C. (1991). Che-myon: Koreans' social face. *Paper Presented at the Colloquium Series, Dep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Hawaii, January.*
- Choi, S. C., & Kim, U. (1992). Multifaceted analyses of chemyon (social face): An indigenous Korean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Colloquium at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May 7.*
- Choi, S. C., Kim, U. & Kim, D-I. (1998). Multifaceted analyses of Chemyon("social face"): An indigenous Korean perspective.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1, 3- 22.
- Choi, S. C., & Kim, K. (1999c).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Chemyon.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7, Taipei, Taiwan.*

눈치:

- 최상진, 최연희 (1989). 눈치의 사회심리학적 구조: 눈치의 개념화를 위한 탐색적 시안.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212-221.
- 최연희, 최상진 (1990). 눈치기제가 유발되는 상황과 이유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293-302.

최상진, 진승범 (1995). 한국인의 눈치의 심리적 표상 체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511-521.

Choi, S. C., & Choi, S-H. (1990). The conceptualization of Korean tact, Noon-chi. *Paper presented at the 10th International Congress for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July 16-21, Nara, Japan.*

Choi, S. C., & Choi S-H. (1992). The conceptualization of Korean tact, noon-chi.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the Innovation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Swets & Zeitlinger B. V., Amsterdam/Lisse.*

의례성(儀禮性):

유승엽, 최상진(1995). 한국인의 '의례성'에 관여되는 심리과정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523-541.

최상진, 유승엽 (1994). 한국인의 의례적 언행과 그 기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369-385.

평계:

최상진, 임영식, 유승엽 (1991). 평계의 귀인/인식론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339-410.

의리(義理):

최상진, 김미희, 박정열, 김기범 (2000). 대학생들의 의리의식 및 의리행동에 대한 성격분석.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팔자(八字):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b). 한국인의 신세조망양식.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Choi, S. C., & Kim, J-Y. (2000). Lay attribution to negative and positive events of the Korean people: Based on fate(Palza). *Paper presented at the XVth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July 16-21, Pultusk, Pol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actice of Korean cultural psychology: Twenty years of experiential learning through doing cultural psychology in Korea

Sang-Chi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paper articulated that my personal academic experiences in doing cultural and Korean psychology during last 20 years have been integrated into the framework of cultural or indigenous psychology. What I and my colleagues have done is to fi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eople and develop them into psychological concept. For example, they are Cheong, Han, Shimcheong, Weness, Chemyon, Noonchi, and so on. In addition, I would like to argue that psychology and culture are not considered a different dimension explaining for psychological phenomena. Thus, we are facing the challenges of constructing the theory of the Korean psychology.